

나주시 지역맞춤 보건정책 효과...음주·흡연을 낮다

시민 건강 지표 대폭 호전...아침 식사 등 건강 실천율 높아
윤병태 시장 “건강행태 개선·만성질환 예방 사업 확대할 것”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강화로 나주시민의 건강지표가 대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31일 시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단위 건강정책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되는 지역 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관리

수준 등을 분석해 주요 보건 통계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 내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895명(540가구)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고혈압, 당뇨병 등)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에 대해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7.4%로 전국 중앙값(18.9%)보다 낮았고 월간 음주율도 10.8%로 전국 평균(12.6%)보다 낮게 조사됐다. 특히 아침 식

사 실천율은 52.5%로 전국 평균(47.5%)보다 높아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5.4%로 전국 평균(6.2%)보다 낮았으며 이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20.8%로 전국 평균(21.1%)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중풍) 초기 증상 인지율은 78.3%로 전국 평균(59.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심근경색증 초기 증상 인지율 역시 71.2%로 전국 평균(49.7%)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우울감 경험률 5.4%(6.2%), 이환 분야에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 20.8%(21.1%), 뇌졸중(중풍) 초기증상 인지율 78.3%(59.2%), 심근경색증 초기증상 인지율 71.2%(49.7%) 이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목재산업 거점 플랫폼 목재산단 화순에 ‘등지’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준공
국산 목재로 구조용 집성재 생산

지역 목재산업의 생산기반 집약·규모화를 위한 거점 플랫폼인 목재산단지가 화순에 등지를 틀었다. 화순군은 1일 산단에 들어선 이양농공단지에서 화순 목재산단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축사, 테이프 커팅, 조합 내 기계 장비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2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 시작된 목재산단단지조성사업은 자부담 포함 50억원의 예산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 인상과 외화 폭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로 10억원을 더해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총복 제천, 강원 춘천에 이어 국내 세번째다. 총 6600㎡(2000평)로, 3개의 가공공과 1개의 보관동에 프리컷가공기, 프레스 가공기, 평거조인트 등 생산장비를 두루 갖췄다.



1일 화순 이양농공단지에서 지역 기관장과 국회의원 목재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 목재산단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준공식’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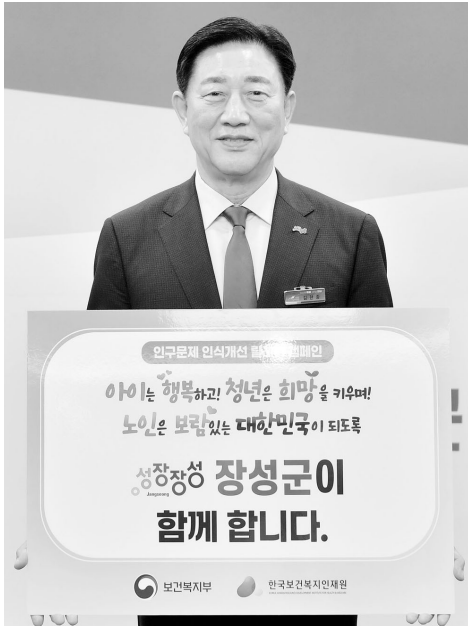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대표 품목으로는 목조건축 구조재인 구조용집성재(Glulam)다. 특히 합판코어 CLT는 충남대 강석구 교수와 조합원사인 휴인(주)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제품으로 국내 최초 각각 1시간과 2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정 받았으며, 현재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돼 판매

하고 있다. 준공식 자리에서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 최규웅 이사장은 “전남을 거점으로 국내 목조건축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 “인구 감소는 국가적 과제”

릴레이 캠페인 참여

김한중 장성군수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4위에 안착하지 않고 인구문제 개선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 군수는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행사다. 김 군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을 마친 김 군수는 다음 주자로 구북구 화순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를 지명했다. 장성군은 민선8기 들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통한 생활·관계 인구 유입과 장년 정착 지원을 위해 391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을 비롯해 귀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챌린지 동참한 김한중 장성군수.

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건립,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로컬푸드 성장세...‘순환경제’ 실현

반값여행·축제 효과 매출 큰 폭 상승...지역 유입·소비 확대 효과

강진군이 2025년 3월 기준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 부문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은 2025년 3월 현재 마트 매출이 53억7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반면, 로컬푸드 매출은 9억 8600만원으로 10%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전체 소비는 감소했지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마트와 로컬푸드 모두 매출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마트는 61억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 로컬푸드는 3억 9700만원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반값 관광’ 시책과 각종 지역 축제를 통한 방문객 증가를 꼽았다.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역 유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완도축협 매장을 이용한 한 고객은 “여행 중 잠깐 들렀는데, 평소 이용하는 마트보다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놀랐다”며 “강

진에 올 때마다 일부러 들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연간 실적에서도 두 농·축협은 마트와 로컬푸드 부문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로컬푸드 부문은 연간 기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실적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유통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는 강진 농업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이 살아있는 강진, 소비자가 만족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간부 공무원 ‘직장내 갑질·괴롭힘’ 의혹

함평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함평군 감사과는 최근 5급 사무관 A씨가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근무지 면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피해 직원에 따르면 A씨는 면장으로 일한 29개월간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이후에도 이동 시 직원 차량을 이용하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하게 하는 갑질을 일삼았으며 과한 의견 요구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자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지난달 12일 자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분청 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피해를 봤다는 직원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를 파악 조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정안식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감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36년 공직 생활을 하며 직원들에게 악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갑질을 하지 않았고, 지역 후배인 직원 마음에 피해를 주었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면서 “조사가 끝난 후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